



미 증시, 대형 테크주 실적 발표 경계감 등으로 하락 전환

미국 증시 리뷰

27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1) 7 월 FOMC 경계심리 2) 중화권 증시 폭락, 3) IMF 의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 격차 확대 전망, 4) 대형 테크주 실적 발표 경계감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 실현성 매도 압력을 강화 시킴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2%, S&P500 -0.5%, 나스닥 -1.2%).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7%), 부동산(+0.8%), 헬스케어(+0.4%) 등이 강세, 경기소비재(-1.2%), 커뮤니케이션(-1.1%), 에너지(-1.1%)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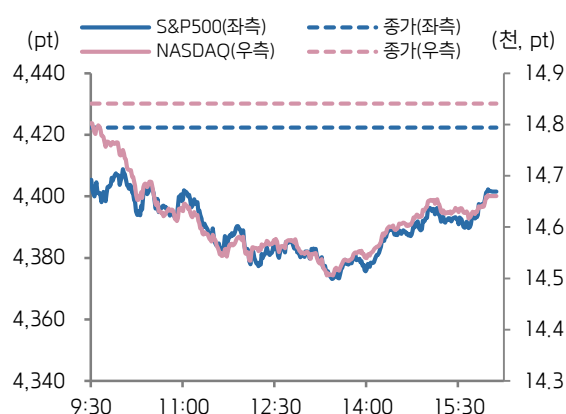
6 월 내구재주문은 +0.8%(MoM)로 전월(+3.2%)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예상치(+0.7%)도 소폭 하회. 반면, 7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29.1 로 전월(128.9) 및 예상치(123.9)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미국인들의 소비 의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

IMF 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2021 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6.0%로 유지.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국(6.3%→7.0%), 유로존(4.4%→4.6%) 등 선진국은 백신 공급 확대, 부양책 효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인도(12.5%→9.5%), 중국(8.4%→8.1%) 등 신흥국은 델타 변이 확산 및 중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다만, 한국은 기존 3.6%에서 4.3%로 0.7%p 상향조정).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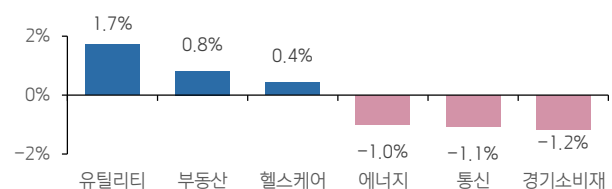
지난 26 일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2.0%) 뿐 아니라, 27 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1.5%), 마이크로소프트(-0.9%), 알파벳(-1.6%) 등 대형 테크 대장주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그러나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 시간외에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2 분기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 전망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중화권 증시의 2 거래일 연속 폭락,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IMF 의 신흥국 성장률 둔화 전망 등 (선진국 증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새로운 악재성 뉴스플로우가 출현했다는 점도 매수 포지션 축소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월말까지도 7 월 FOMC, 부채한도 협상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S&P500&NASDAQ 일종 차트(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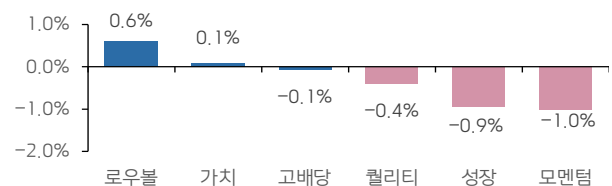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5.0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중국, 홍콩 증시의 추가 폭락 여부에 따른 외국인 수급 여건 변화 가능성
2. 미국 대형 테크주들의 시간외 주가 흐름
3.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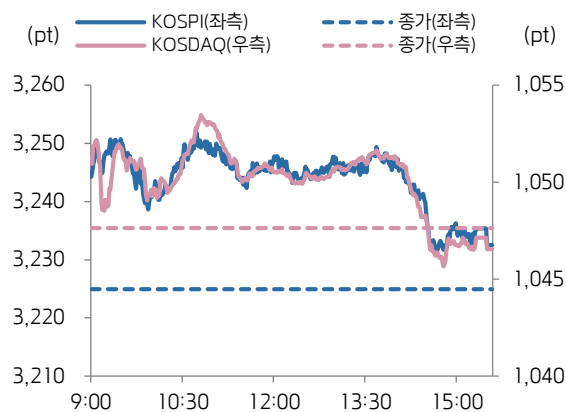
27 일(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미국 실적시즌 기대감에서 기인한 미국 증시 사상최고치 혼풍 속 장전 및 장중 발표된 SK 하이닉스, 삼성 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 다만, 7 월 FOMC 경계심리, 장 중반 이후 규제 우려에서 기인한 중화권 증시 약세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요인으로 작용(코스피 +0.2%, 코스닥 -0.1%). 업종별로는 철강금속(+2.0%), 운수창고(+1.2%), 은행(+1.0%) 등이 강세, 통신(-1.2%), 섬유유통(-1.0%), 의료정밀(-0.8%)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7 억원, 2,269 억원 순매수, 개인이 2,790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발 정책 불확실성, 실적 시즌 경계감 재부각 등으로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하면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2 거래일 연속 중화권 증시 폭락의 배경은 중국 정부의 고유 규제 리스크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향후 해당 대륙 증시의 추가 하락 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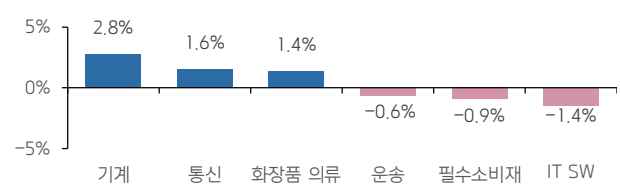
전 거래일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시간외 -1.4%), 알파벳(+3.1%), MS(-2.5%), AMD(+0.5%) 등 대형 테크주들의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시간외에서 혼재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시즌 경계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미국 증시에 비해 지수 레벨 부담이 크지 않았던 만큼, 차익실현성 매도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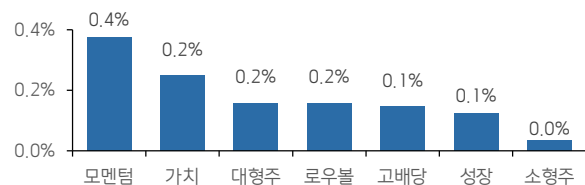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